

여성불자들이 모여 ‘친절종’을 만들까요?

1월 13일, 일진 스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출판 북콘서트 현장

두 비구니 스님이 열썬 안았다. 40년 넘게 도반으로 지내오며 서로 마음으로 의지해왔다는 일진 스님(前 운문사 주지)과 정목 스님(유나방 송 진행자)은 오랫동안 만남에 반가움을 표했다. 일진 스님은 정목 스님을 두고 ‘한국 불교계의 보배’라고 일컬었고, 정목 스님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사람”이라고 일진 스님을 표현했다.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출판 기념 북토크 콘서트가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국제회의장에서 정목 스님(사진 왼쪽)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백여 청중들은 함께 즐거워하며 콘서트 내내 두 스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연발했다.



국악인 송석문씨의 대금 연주도 이어졌다.

정목 스님 : 바쁘신 분인 줄로만 알았다. 어떻게 승만경을 내게 됐다.

일진 스님 : (계속 일하는 게) 성격에 맞는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 출가자로서 밥값을 안 하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운문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으면서 조금 한가해졌다.

정목 스님 : 동국대 재학시절부터 여성성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안다. 계기가 있다.

일진 스님 : 아아 내게 여성 콤플렉스가 있었나보다. 동국대 재학시절 앞으로 어떻게 수행을 할까 고민하며 오대산 적멸보궁에 기도를 갔다. 아침에 산길을 내려오는데 비구 스님 한 무리가 지나가면서 “여자가 백년을 해봐라. 성불이 되나”라고 핀잔주듯 말씀하셨다. 맑은 산기운을 대하면서 정경해졌던 마음에 혼탁한 분심이 일었다. 행사시절 만났던 비구니 노스님도 생각났다. 기도를 참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늘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길 바라셨다. 정말 비구 스님들 말대로 비구니는 백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지 궁금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여성성불가에서 열등한가’ 라는 논문도 썼다. 그게 여성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진 계기였다.

불 씨앗도 갖지 못했다.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인식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구촌에는 여성평화가 만연해 있다.

일진 스님 :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자주 쓰이는 말이 무엇일까. 바로 ‘엄마’다. 다분히 여성적인 말이다. 여성 불자들은 태생적으로 촘촘처럼 헌신적이고 따뜻하다. 촘촘이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여성들은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고 살릴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이야기는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법으로 확대됐다. 두 스님은 여성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말

원 중에서 스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일진 스님 : 승만경은 짧은 경전이다. 그중 핵심은 승만부인의 10대원 가운데 세 번째 원인 중생에 대해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장 율사는 100만가지 탐심을 일으키는 것보다 1번 진심을 일으키는 게 독이 된다고 하셨다. 독 중에서 가장 큰 독이다. 불교 신자가 화를 못 다스린다면 사실 가짜신도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나눔 역시 중요하다. 나누는 마음이 확산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나눔은 종교적 가르침과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 시대에 필수불

이고 보통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요즘은 화가 나면 일단 웃는다. 화로써 풀지 않고 이를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정목 스님은 일진 스님을 두고 “일진(日進) 상냥, 일진 친절”이라고 농담처럼 칭하며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승만경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분”이라고 평했다. 이어 정목 스님이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다고 던진 말은 청중들 사이에서 가장 열렬한 환영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국 불교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꼬집는 말이었다.

금와서 생각해 보니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덜 똑똑하더라도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스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세상을 살고있고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이들이 마음을 추스르려 절집에 왔건만 내다보는 사람은 없고 눈 한번 맞춰주는 사람이 없다. 오로지 불사현수막만 황량한 바람에 나부꼈뿐이다. 정국의 모든 사람은 병원이고 치료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차한잔 하고기라고 말할 수 있는 절이 될 수 있을까. 일진 스님은 그런 생각을 40년 넘게 해오는 분인 것 같다.

정목 스님은 끝으로 일진 스님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다. 일진 스님은 “따뜻한 노스님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스님은 “짧었을 시절부터의 꿈이다. 어떤 이들이 와도 누웠던 갈 수 있는 무릎을 내어줄 수 있는 따뜻한 스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토크콘서트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끝났다. 정목 스님은 “밥 한끼를 대신할 수 있는 게 경전이다. 오늘 역시 수많은 이들에게 양식과도 같은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진 스님

여자는 백년 해도 안된다고?

여성성불 관심 가진 것이 계기

여성 불자 헌신적·따뜻함 강점



콘서트 도중 활짝 웃는 일진 스님(사진 왼쪽)과 정목 스님

에 공감하며 어떻게 이를 실현시킬 것인지에 관해 대화를 이어나갔다.

일진 스님 : 여성이 행복해지는 법. 그것에 내 화두다. 다른 경전도 근본적인 행복의 진리를 담고 있지만 <승만경>은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성불할 수 있다는 여래장사상, 일승 사상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은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 승만경에는 승만 부인의 10대 서원을 통해 부처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정목 스님 : 사회적으로 힘든 고비가 많다. 때문에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승만경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듯 하다. 승만부인의 10대

가결한 요소다. 재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화를 내지 않아도 삶에 대단한 변화가 온다. 맑고 밝은 마음,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받고 행복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부처님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정목 스님 : 대한민국이 분노공화국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분노를 안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스님은 화날 때 어떻게 하시나.

일진 스님 : 학인 때는 분노에 휘둘리는 게 싫어서 입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이것 역시 대단한 교만심

정목 스님

조금 덜 똑똑하더라도

따뜻한 출가자 많아진다면

절 찾은 이들 위안 받고 싶지

정목 스님 : 책을 읽다 ‘한국 불교에 친절종은 없다’는 문장을 읽고 무릎을 치게 됐다.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하는 게 불교인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낯선 일이 되어버렸나. 친절종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나. (좌중 웃음)

일진 스님 : 비구니 스님들은 냉정하더라는 생각이 많이 했다. 청정하게 수행해 왔다는 아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다. 스님들 초소에 관광객 출입제한 안내문을 걸때도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삼가해 주세요’ 라는 문장조차 ‘들어오지마시오’ 라고 완고하게 고집 정도다. 흔히 말하는 ‘중물’을 좀 빨리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정목 스님 : 예전에는 “똑똑하고 유능한 이들이 불가에 귀의해 불교를 빛내주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지

콘서트를 보기 위해 회사를 조퇴하고 왔다는 이유 미(43)씨는 “최근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두 스님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 한 켠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다”며 “책도 방금 구입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승만경을 읽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으로 2주 넘게 도반들과 공부하고 있다는 정목(40)씨 역시 “불자로서, 여성으로서 나에게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일진 스님에게 책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이었다.

글=배현진 기자 iinus@hyunbul.com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 한국불교미륵종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공고

최근 본종단 총무원장 선임에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종단 정상화를 위해 만암문도회와 애종심 있는 종도스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2015년11월27일 만암당 승정대중사 1주기 다례제에서 본 종단 총무원장이신 덕운스님이 사의를 표한 바, 후임 총무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법인이사회에서 중헌종법을 무시하고 총무원장권대행으로 감찰원장 묘각스님을 선출하였다.

중헌종법 제10항 총무원, 제46조(권한), 2)총무부장의 권한 제1항 총무부장은 총무원장을 보좌 하며 총무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법인이사 4명이 결탁하여 독단적으로 중헌종법을 무시하고 감찰원장 묘각스님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였으며, 탈법과 편법이 자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종정스님은 중회를 해산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12월30일 종도대표로 만암문도회 회장스님이 종정스님에게 면담을 청하여 종정스님이 종무식에 참석한 종도들 앞에서 해명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은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자 종도스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묘각스님은 일면식도 없는 타종단 스님을 영입해 감찰원장에 임명하고, 종단 정상화를 염원하며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불법조직으로 매도하고, 전임 총무원부원장, 중앙종의 회의장, 교유원장, 총무부장등에게는 권한대행 선임의 부당함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종행위로 간주하여 감찰원장 명의로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 했으며, 종단 홈페이지에 올린 중

도스님들의 권한대행에 관련한 의견은 전부 삭제 해버리는 등, 독선과 독주로 파행적 종단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종단 정상화를 위해 확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공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I. 현 사태를 초래한 종정스님은 책임져라!

I. 현 사태를 초래한 법인이사진은 물러나라!

(사)한국불교미륵종 비상대책위원회

- 위원장 : 영각
- 고 문 : 지운, 만성, 영탄
- 위 원 : 광명, 대일, 대현, 묘향, 법진, 성공, 성일, 수경, 수련, 영경, 영범, 영빈, 영성, 영운, 영인, 영조, 영지, 혜권, 혜능, 혜도, 혜동, 혜법, 혜빈, 혜안, 혜운, 혜중, 혜충,

2015년 1월 15일

(사)한국불교미륵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영각